

오리업계 회생을 위한 호소문



김만섭
사) 한국오리협회장

우리 협회가 이렇게 호소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 그리고 국민의 무관심 속에 사상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오리산업을 살리기 위해 업계의 현 상황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함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옥수수 등 곡물 자원을 이용하고, 중국 및 인도 등에서도 일제히 곡물수요가 동반 증가하면서 이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사료가격도 함께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사료업계에서도 일제히 사료가를 인상하여 양축농가들의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던 상황에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의 양계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약 2달여간 전국에 33차례나 발생하면서 인체감염설, AI 대유행설 등의 유언비어로 인해 오리고기 소비는 발생 전 대비 90% 이상 급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2일 이후로 더 이상의 추가발생이 없어 AI 상황이 서서히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또한 북경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도 닭고기 소비는 발생 전 대비 70~80%까지 회복한 반면, 오리고기 소비는 30~40%로 미미한 회복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리사육업계는 생산된 오리의 출하처를 찾지 못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오리농가들이 어렵게 오리사육을 이어오고 있는 중, 또다시 예상치 못한 화물연대가 파업함으로써 인해 지난

13일부터 사료운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정성으로 키우던 오리를 굶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해 농가부채까지 늘어나는 상황에 어렵게 확보한 사료마저 어처구니없이 운송문제로 적기에 공급받지 못해 오리들이 아사(餓死)한다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업계로서는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협회는 자구적인 수급조절 노력과 함께 종오리·종란 도태 사업 등으로 업계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추가 구매 없이는 업계 정상화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여 6월과 7월의 전체 생산예상 물량 중 예상 소비물량을 제외하고 예상 재고물량 4,766천수의 50%에 해당하는 2,383천수의 물량을 추가 구매를 통해 업계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리업을 포기하지 않고 매진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더 이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측의 지원과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8년 6월 19일 (사) 한국오리협회 회원 일동